

李德懋 『清脾錄』에 나타난 中國詩와 詩人에 대한 批評樣相 考察

田永實*

目次

- I. 序論
- II. 作家論
- III. 作品論
- IV. 中國 文人의 高麗와 朝鮮觀
- V. 結論

I. 序論

李德懋는 定宗의 別子인 茂林君의 후예로 부친인 李聖浩와 모친 박씨의 2남 2녀 중 장남으로 1741년(英祖 17년) 음력 6월 11일에 漢城의 寬仁坊 大寺洞에서 태어나서 1793년(正祖 17년)에 53세의 나이로 일생을 마쳤다. 그의 字는 明淑이고 나중에 懋官으로 고쳤고, 號는 靑莊館이었다가 正祖가 ‘雅’자라는 평어를 써 준데서 연유하여 雅亭으로 고쳤다. 그는 어려서부터 집안이 어려웠고 특히 父親인 李聖浩가 祖父인 李必益의 庶子인 관계로 서열이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학문정진에 힘을 썼다. 이후 북학과라 불리는 朴趾源, 柳得恭, 朴齊家, 李書九등과 교유하면서 수학하였다. 특히 洪大容을 통하여 燕行 견문을 듣게 되면서 청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다. 북학과그룹에서의 洪大容의 1765년의 연행은 그들의 연행의 지침서와 같았고 洪大容을 통하여 북경의 문인과 서찰이 교환되면서 학문 교류의 발판이 된다. 李德懋가 중

* 韓國外國語大學校 中國語科 講師. jyykin@hanmail.net.

국 문인과 詩文을 통하여 교류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는 『韓客巾衍集』의 간행이다. 柳得恭의 숙부인 柳蓮이 李德懋, 柳得恭, 朴齊家, 李書九의 작품을 한데 묶은 『韓客巾衍集』을 가지고 사신으로 연행에 가서 李調元和 潘庭筠으로부터 序文을 얻게 되고 그 문집을 통하여 李德懋는 청대의 문예계에 이름이 알려지게 된다. 그 후 1778년에 중국에 사신의 일행으로 가면서 『韓客巾衍集』의 서문을 주었던 李調元和 潘庭筠을 만나면서 중국문인과의 교유의 계기를 갖게 된다. 이덕무는 연행 기간에 새로운 건문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하여 한층 더 발전된 학풍을 갖게 된다. 그의 관직은 몇 차례의 외직을 제외하고는 1779년부터 줄곧 奎章閣의 檢書官이었다. 평소 독서광이었던 이덕무는 검서관을 통하여 많은 서적을 접하게 되었고, 아울러 능력도 인정받아서 몇 차례의 外職을 할 때조차도 줄곧 奎章閣에서 검서관의 직책을 겸하였다. 이덕무가 죽은 이후에 그의 재능을 아끼던 정조는 그의 遺稿를 간행하게 하여 『雅亭遺稿』 8권이 나왔다. 그의 저서로는 12종이 있는데¹⁾ 이것들을 『靑莊館全書』에 한데 묶었다.

12종의 저술 가운데 하나인 『淸脾錄』은 李德懋가 지은 詩選集이며 詩批評書이다. 시비평서 성격의 시화는 宋의 歐陽修의 『六一詩話』에서 그 체제가 갖추어져 성행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형식과 내용면에서 시화의 시작은 고려 말 李奎報 (1168-1241)의 『白雲小說』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서서 徐居正(1420-1488)의 『東人詩話』는 평론문학의 서막을 열었고, 『東人詩話』 외에 許筠의 『惺叟詩話』, 南龍翼의 『壺谷詩話』 등이 있었다. 이 평론서들에 의해 비평문학이 발전하게 된다. 조선 중기에 이르러 李晬光과 許均²⁾에 의해 발전해 오다가 이후 李翼의 『星湖僊說』의 「詩文門」과 李德懋의 『靑莊館全書』의 『淸脾錄』이 나오게 된다.

1) 그 12종은 다음과 같다. 『嬰處稿』, 『靑莊館稿』, 『耳目口心書』, 『淸脾錄』, 『士小節』, 『紀年兒覽』, 『蜻蛉國志』, 『蟲葉記』, 『寒竹堂陟筆』, 『禮記憶』, 『宋史補遺傳』, 『磊磊落落書』

2) 李晬光은 『芝峰類說』에서 論의 형식으로 평을 했고, 『鶴山樵談』은 명대의 詩, 문장과 작가를 거론한 共時論적인 시화였다. 그러나 許均은 『惺叟詩話』에서 신라부터 당대 인물의 시와 문장을 거론하여 通時論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이덕무가 『淸脾錄』을 저술한 시기는 분명하지는 않다. 다만 그의 年譜에 의하면 35세에 『士小節』을 지었다는 사실과 朴趾源의 행장에서 『士小節』다음으로 『淸脾錄』을 언급한 점과 또한 그가 연경에 갔을 때 李調元에게 보낸 글에서 『淸脾錄』의 서문을 부탁한 점으로 보아서 그의 나이 37세(1778년)로 추정된다. 『淸脾錄』은 고려시기부터 이덕무가 살았던 시기까지 약 6백년간에 걸친 시기의 시인과 시화를 수록하였고 중국 부분에서는 唐代에서 清代에 이르는 시기까지의 시인과 작품을 수록하였다. 『淸脾錄』의 시화상의 의의는 서문을 쓴 柳得恭의 말에서 『淸脾錄』은 옛 성현의 시론의 취지가 맞았다는 점과 창랑과 초계의 시화에 필적할 만하고 표현의 서술은 정성스럽게 하고 편견을 가지지 않아서 시화 중에서 일품이라고 표현하였다.³⁾에서 알 수 있다.

『淸脾錄』에는 170개 향이 있다. 이 중에서 중국의 문인에 관련된 향은 76향이다.⁴⁾ 『淸脾錄』의 분류를 보면 일반적인 분류인 詩話, 論詩, 詩評으로 명확하게 구별하지는 않았지만, 주로 시평을 위주로 하였다. 이것은 이덕무가 스스로 시를 평하는 것이 시를 짓는 것 보다 어렵다고 한 점을 말하면서 시를 평하는 자신의 일에 자신감을 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⁵⁾

李德懋는 『淸脾錄』에서 60여명의 중국문인에 대해 평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흠모하는 추송이 아닌 객관적으로 평을 하고 있다. 중국의 문인에 대해 사

3) 「序文」, “庶幾乎古聖賢說詩之旨... 滄浪蒼溪. 又何足道哉... 莫不表揚. 倦倦致意. 又不執偏見. 取其所長. 無固哉之譏..... 可謂詩話之選也(옛 성현들이 시를 말한 취지에 가깝다. 창랑과 초계라도 어찌 말할 수 있었겠는가?”면서 “정성스럽게 뜻을 다해 표양하지 않는 것이 없되, 또한 편견을 가지지 않고 장점만을 취함으로써 고집스럽다는 기룡이 없게 하여..... 시화중의 文選이라 할 수 있다.)”

4) 崔順基, 「李德懋의 『淸脾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7), 40쪽. 최순기의 논문에서 『淸脾錄』에서 평한 문인들을 국가별로 나누었다. 韓國은 高麗와 朝鮮시대에 대해 각각 11향과 76향에서 언급되고 中國은 南北朝 5향, 唐 13향, 宋 12향, 元 8향, 明 12향, 金 7향, 淸 19 향이고 日本에 대한 것은 5향임을 밝혔다.

5) 「序文」, “自古有作詩者. 有說詩者. 作詩者. 雖委巷婦孺. 無所不可. 說詩者. 非明睿特達有鑑識者. 不能焉.(옛적부터 시를 짓는 사람과 시를 해설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를 짓는 사람은 비록 향간의 부녀자나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안 될 것이 없지만, 시를 해설함에 있어서는 슬기롭고 통달하여 감식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되지 않는 것이다.)”

대적인 입장과는 달리 객관적으로 시를 평하고 있고 시평의 기준은 중국의 이론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의견을 표현 하였다. 『清脾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최순기의 석사학위 논문인 「李德懋의 『清脾錄』 연구」에서 시작이 되었다. 지금까지 『清脾錄』에 대한 연구는 시화, 평어연구 및 비평을 주로 하였다.⁶⁾

필자는 『清脾錄』에 언급된 중국문인들에 대한 작가평과 작품평 및 중국 문인들의 조선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조선후기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문화적 증흥기인 英·正祖 시기에 중국의 문학에 대해 조선의 지식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가치가 있다 할 수 있겠다. 더군다나 이덕무는 청나라를 배우려한 북학파의 한 일원이었으니 중국을 막연히 丙子胡亂의 원수로 보는 다른 인물들과는 다르게 보았을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필자는 그의 저서인 『清脾錄』을 통하여 중국문인에 대한 평을 살펴보고자 한다.

『清脾錄』의 우리말 해석은 민족문화추진회의 편역한 자료에 의하였고, 본고에서 다른 『清脾錄』에 언급된 문인 중에서 중국문인들에 대한 분류 기준은 북경에서 발간된 『韓國詩話中論中國詩資料選粹』의 분류에 의해 나누었다.⁷⁾

6) 『清脾錄』에 관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최순기, 「李德懋의 『清脾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7). 朴守川, 「『清脾錄』의 詩話論的 考察」, 『石堂論叢』(1992). 정대립, 「『清脾錄』에 나타난 비평의 양상」, 『세종대학교 논문집』, 제20집(1993). 김학돈, 「李德懋의 시화연구: 『清脾錄』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3). 정숙인, 「『清脾錄』을 통해본 李德懋의 비평양상」, 『語文研究』, 제27권(1997). 朴現圭, 「청 李調元和 조선의 이덕무의 『清脾錄』」, 『한문학연구』, 제13집(1998). 鄭淑仁, 「『清脾錄』을 통해본 이덕무의 批評樣相」, 『韓國語文教育研究會』(1999). 유재일, 「『續函海』本 『清脾錄』의 발간 경위고찰: 이덕무와 청대문사들과의 교류를 바탕으로」, 『人文科學論集』, 제21집(2000). 鄭健行, 「조선 李德懋 『清脾錄』選錄」, 『東亞人文學』, 제4권(2003). 최옥현, 「李德懋의 『清脾錄』의 評語연구」,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3). 이학당, 「정장관 李德懋의 중국역대작가비평양상에 관한 고찰」, 『漢文學報』, 제20권(2009). 전혜영, 「『清脾錄』의 評語批評연구: 『清』과 『精』字를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9). 이상의 논문들은 주로 시화를 중심으로 비평과 시어 중심의 연구였다.

7) 鄭健行, 陳永明, 吳叔鈿選編, (北京:中華書局, 2002). 본고에서는 『韓國詩話中論中國詩資

II. 作家論

李德懋는 작가, 엄밀히 말하자면 시인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자질에 대해 시인은 학문적으로는 성리학이나 문장과 서법에 각각 능해야 한다고 하였다.⁸⁾ 이에 따라서 본 장에서는 시인의 자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⁹⁾

1) 詩人의 資質

이덕무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작가의 자질에 대한 생각을 시인 王士禛¹⁰⁾의 작품을 평하면서 주장했다. 이덕무가 王士禛의 작품을 거론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기존의 당대 시인들에 대한 우월적인 평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王士禛은 특히 詩歌의 唐詩위주의 추송 기풍을 비판하였고 이덕무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덕무의 漁洋이 시를 논한 부분과 어양 작품에 대한 평이 「漁洋論詩」에 있다.

鐵崖樂府氣淋漓, 양유정의 악부는 힘이 차고,

料選粹』의 책에서 역대 한국의 시화집에 실린 중국관련 부분을 언급한 것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 8) 「嚴鐵橋, “深於性理之學. 工文章. 善隸書.” “嚴誠字力闇. 號鐵橋. 浙江錢塘人. 雍正壬子生.(嚴誠의 자는 力闇이고 호는 鐵橋이며, 浙江省의 錢塘 사람으로 雍正10년(1732)에 출생하였다.)”
- 9) 필자는 이덕무의 개인적인 평을 우선시하여 기존의 분류보다는 『清脾錄』에서 언급된 작가와 작품에 대한 사항에 의해 작가론과 작품론의 내용을 삼았다. 아울러 필자는 앞서의 언급에서 보여주었듯이 당대에서 청대까지의 60여명의 작가와 작품 중에서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작가나 작품은 각 절의 제목에 근접하는 것을 위주로 하였다. 그런 결과 언급이 많은 작가나 작품이 본고의 내용이 되었음을 밝힌다.
- 10) 「王阮亭, “王士禛, 字貽上. 號阮亭. 後避雍正諱. 改名士正. 案亦曰士貞士澂. 亦號漁洋山人. 濟南新城人. 順治乙未進士. 康熙朝. 官至刑部尙書.(왕사진(1634-1711)의 자는 貽上이며 호는 阮亭인데, 뒤에 雍正의 諱를 피하여 이름을 士正이라 고쳤으며, 士貞, 士澂이라고도 한다. 호는 漁洋山人이라고도 한다. 濟南의 新城人으로 順治 12년(1655)에 進士가 되었고, 康熙 때에 벼슬이 刑部尙書에까지 이르렀다.)”

淵穎歌行格儘奇.	오내의 가행은 격이 기이하네.
耳食紛紛說開寶,	말만 믿는 자 모두 개보 시대 말하지만,
幾人眼見宋元詩.	송원의 시 직접 본 이 몇이나 되랴.

李德懋는 왕사정이 楊維禎(1296-1370)¹¹⁾의 악부는 힘이 있고 吳萊(1296-1340)¹²⁾의 가행은 기이하다고 하였다. 양유정과 吳萊는 모두 元末明初의 시기에 활약한 시인이었다. 이 두 시인의 작품에서는 기존의 당사에서 보여 주었던 힘이 있고 기이한 점이 있고, 이 시구가 공평하면서 넓고 단아해서 좋아했다는 것이다.(余嘗愛此詩之公平博雅.) 다른 한편으로 이덕무는 古詩를 높이면서 元, 明의 詩를 배척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였다. 그 배척의 이유가 唐과 격률이 맞지 않다는 이유지만 이것은 마땅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평하였다.

둘째는 李德懋는 시인의 자질에 대해 어양을 평하면서 시인에 대한 의견을 보여 주었다. 그는 漁洋에 대해 시를 잘 짓고, 맑고, 빼어나며 한적한 아름다움과 담백하고 유창하며 모든 이가 다른 의견이 없이 존경한다고 평하고 있다.¹³⁾ 이는 앞서의 언급처럼 시인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질을 어양이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것들이 바로 시인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자질

- 11) 李曰剛, 『中國詩歌流變史』, (臺北: 文津出版社, 1979), 155-156쪽. 楊維禎(1296-1370)字廉夫, 會稽人, 泰定四年級進士, 元末, 天下大亂, 避地富春山. 明興詔徵遺逸之士修纂禮樂, 維禎亦被召. 維禎詩歌樂府, 上法漢魏, 而出入於少陵. 著有『東維子集』30卷, 『鐵崖古樂府』16卷, 『樂府補』, 『復古詩集』6卷, 今傳於世.(자는 염부이고 회계인이다. 태정4년에 진사에 급제하고 이후 원말에 천하가 어지러워지자 부춘산으로 피하고 명이 흥하여 은일한 선비를 불러 예악을 편찬하게 되는데 유정도 부름을 받는다. 유정은 시가 악부에 능하고 위로 한위의 법을 따르고 소릉에 들어가게 된다. 저서로는 『東維子集』30卷, 『鐵崖古樂府』16卷, 『樂府補』, 『復古詩集』6卷이 있어 세상에 전하고 있다.)
- 12) 李曰剛, 『中國詩歌流變史』, (臺北, 文津出版社, 1979), 158쪽. 吳萊(1296-1340), 字立夫婺州浦陽人..... 萊詩雄深嶄絕, 特長於歌行. 著有『淵穎集』12卷.(오내는 자가 입부이고 무주 포양인이다. 오래된 시는 웅장하고 깊고 높고 빼어나고, 특히 가행에 뛰어났다. 저서로는 『淵穎集』12卷이 있다.)
- 13) 「王阮亭」, 「善爲詩, 大率清秀閒雅. 澹靜流麗. 淹洽宏肆. 其老來諸作. 尤磊落槎牙. 爲海內詩宗者. 迄今百餘年. 無一人異辭. 尊敬之極.」

인 것이다. 이런 어양에 대한 이덕무의 존경심은 어양을 비난하는 자를 오히려 비판하기도 한다.¹⁴⁾

또한 이덕무는 작가는 성품적인 면에서도 고결함을 지녀야 함을 말하였다. 그런 연유로 중국의 문인 중에서 高潔함을 상징하는 인물로 呂留良를 언급했다. 이덕무는 兪允의 『晚村集』¹⁵⁾을 거론하면서 그의 시는 모두 幼安·淵明의 고결한 뜻¹⁶⁾과 臯羽·所南의 비분강개한 정취가 담겨 있어서¹⁷⁾, 사람들로 하여금 슬퍼서 눈물이 저절로 흐르게 한다고 하면서 시를 짓는 재주가 절묘하고 멋이 있다고 평하고 있다.¹⁸⁾

14) 이덕무는 「王阮亭」에 어양을 비난하는 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惟趙秋谷執信。字伸符。山東益都人。官左春坊左贊善。以馮定遠詩。爲宗匠。著談龍錄。詆謀漁洋。雍正乾隆之間。亦王有峻。官御史。者。時時侵斥。此直蜉蝣輩耳。何足撼漁洋也哉。(趙執信 자는 伸符이며, 山東 益都人사람인데 벼슬은 左春坊의 左贊善이다. 만은 풍정원의 시로 宗匠을 삼아 『談龍錄』을 지어 漁洋을 헐뜯었다. 雍正·乾隆 연간에는 관직이 어사인 王有峻이란 자가 있어서 이따금 왕어양을 배척하였으나, 이는 바로 하루살이 같은 무리일 따름인데 어떻게 어양을 흔들 수 있단 말인가.)”

15) 李德懋는 이 당시 책의 구입에 대한 일화를 언급하였다. 본래 呂留良의 『晚村集』세상에 전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吳琬이 燕京에 들어가 은밀히 구하려 하였으나 얻지 못했는데, 영조 29년(1753)에 참관 兪漢蕭가 副使로 연경에 들어가 그를 구하려 하자, 어떤 선비 하나가 『晚村詩集』 초본 1책을 갖고 은밀히 사관으로 유참관을 찾아와서 올면서 그 책을 전해 주었다. 이리하여 유 참관이 이를 가져다가 바쳤는데, 이로부터 사대부들 집에서 차츰 이를 베껴 두었다고 하였다. “康熙時, 旣頒覺迷錄. 而呂留良晚村集, 不復傳於天下. 吳月谷瓊, 入燕, 潛求之不得. 先王癸酉. 兪參判漢蕭, 以副使入燕, 求之. 有一士, 懷晚村詩集抄本一冊.”

16) 房玄齡等 撰, 『晉書卷九十四』, (北京: 中華書局, 1987), 2461쪽. 兪允은 삼국시대 魏의 管寧의 자이다. 그는 일찍이 난리를 피해 遼東으로 가 살며 학문에만 열중하면서 위 문제와 명제 연간에 걸쳐 태중대부 등 여러 차례 관직의 부름이 있었으나 전혀 나가지 않았다.

17) 臯羽는 宋末의 節臣였던 謝翱의 자. 그는 元의 군사가 臨安까지 내려왔을 때, 승상 文天祥이 개설한 延平의 府에서 諮議參軍으로 있다가, 元에 구류되었던 문천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西臺擲哭記를 짓고 山水를 즐기며 유유자적하였다. 所南은 역시 송말의 충신인 鄭思肖의 자. 그는 원병이 남쪽으로 내려오자 吳下에 은거하면서 종신토록 장가도 들지 않았으며, 생전에 자기 位牌를 만들어 ‘大宋不忠不孝鄭思肖’라고 써 놓았다 한다.

18) 『晚村集』, “詩皆幼安淵明之志, 臯羽所南之悲. 令人掩抑, 涕淚橫集”

이덕무는 여유량의 작품인 「春去與子度」의 “春自全身潛引去, 花殊強項不同歸(봄은 송두리째 슬쩍 빠져 나갔건만, 꽃은 꺾끗한 목으로 따라가지 않았구려.)”의 구절에서 시대의 흐름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결함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耦耕」의 “醒便行吟理亦可, 無慚尺布裹頭歸.(홀로 깨어 읊조리는 것 또한 그럴싸한 일, 베 쪽으로 머리 싸매고 물러가도 부끄럼 없으리)” 구절에서는 벼슬을 그만두고 농사일을 하면서도 부끄럽지 않다는 굳은 절개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절개는 자기를 당당하게 하고 많은 위인들이 시절이 좋지 않아서 은거하게 되는 것에 대한 悲憤함을 표현하였다.

名絀清流異代尊,
近聞隱迹在朱門.
織簾賣藥終南逕,¹⁹⁾

.....

孤山長往鶴銷魂.
可憐傳記人誰托,
歇蕪田塍孜細論.

청렴결백으로 이름난 이는 후세에도 존경하기에,
근래엔 귀인들이 자취를 감춘다고 들었네.
베짜고 약초 파니 종남 길이요,

고산은 영원히 갔어라 학의 넋이 사라졌네.
애처롭다 전기를 누구에게 부탁하랴,
밭 갈고 김매는 일이나 자세히 논해 보세.

이외에 「西樵」에서는 漁洋의 형인 西樵 王士禛²⁰⁾의 작품인 「巢氏詩」의 구절에서 “姬人水檻焚香侍, 秋響扁舟抱膝聽 (사미인은 난간에서 분향하며 모시는데, 조각배서 무릎 괴고 가을 소리 듣네)”의 부분을 깨끗하고 밝고 아름답고 담백한 점이 좋았는데 그 전집을 다 읽지 못하여 아쉽다고 평하였다.(余嘗愛此詩. 瀟朗妍澹. 恨不讀其全集.)

19) 態純生 編, 『辭海』, (臺北: 臺灣中華書局, 1980), 3427쪽, 재인용. “唐盧藏用, 舉進士, 有意當世而不得調, 乃隱終南山. 終南近京師, 亦爲時君所徵召, 尋果被召入仕(당 노장용이 진사에 천거되었지만 그때 세상에 뜻이 없어서 종남산에 은거하자 종남산에 경사가 있어서 임금에게 부름을 받아 벼슬길에 들어간다.)” 終南捷徑의 준말로, 종남산 속에 있는 것이 벼슬길의 첩경이 된다는 뜻으로 쓴 말이다. 『唐書·盧藏用傳』.

20) 方賓觀, 王存, 何育禧等 編纂, 『中國人名大辭典』, (北京: 商務印書館, 2005). 王士禛은 청나라 사람으로 자는 子底, 호는 西樵. 관직으로 吏部考工員外郎을 지냈고 시에 능하였으며 특히 孟浩然의 시를 좋아하였다. 그의 동생 士祐·士禎과 함께 三王으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李德懋는 작가가 깨끗한 性情을 가져야만 훌륭한 작품이 나온다는 것에 부정하는 평을 하였다. 劉豫²¹⁾의 작품을 보자.

風荷柄柄弄清香,	연꽃은 맑은 향기 풍겨 오고,
輕薄沙禽落又翔.	가벼운 물새는 앉았다 날았다 하네.
紅日轉西漁艇散,	해 기울고 고깃배 돌아가니,
一川山影暮天涼.	온 내 저녁놀에 하늘 공기 서늘해.
寒林煙重暝棲鴉,	연기 낀 쓸쓸한 숲 속에 까마귀 즐고,
遠寺疎鍾送落霞.	먼 절의 종소리 저녁놀 전송하네.
無限巖雲遮不斷,	한없는 고개 구름 자꾸만 몰려드는데,
數聲和月到山家.	몇 마디 달 읊는 소리 산집에 들려오누나.

이덕무는 송대에 역적이었던 유예의 작품이 그의 성정과는 반대로 매우 맑고 조화롭다고 평하였다. 이것은 나쁜 중에서도 취할 바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²²⁾ 작품에서 작가의 시선이 호숫가에서 숲 속으로 가고 결국에는 인가에 머무르게 된다. 그런 과정에서 주변 환경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연꽃이 핀 호숫가에 저녁이 되어서 아무도 없는데 물새가 날아든다. 숲 속에서는 까마귀가 즐고 있고 저녁놀을 전송하며 밤이 찾아온다. 작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변 환경의 변화와 사물들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잘 묘사하였다. 이상의 언급 외에도 「工於體物」에서 唐陳詠과 劉禹錫을 사물묘사에 뛰어나다고 평하고²³⁾, 다른 한편으로 李調元²⁴⁾의 평을 예를 들어서 원매를 회고시에 능

21) 方賓觀, 王存, 何育禧等 編纂, 『中國人名大辭典』, (北京: 商務印書館, 2005), 1486쪽. 「劉豫詩」, “豫字彥由. 阜城人. 仕宋. 知濟南府事. 汴京下. 立張邦昌. 爲大楚皇帝. 宋滅楚更立彥由. 國號齊. 建元阜昌八年. 廢爲蜀王. 遷黃龍府. 改封曹. 有集十卷. 行于世.(유예의 자는 언유로 부성사람인데, 송나라에 벼슬하여 知濟南府事가 되었다. 그 무렵에 금나라가 汴京을 함락시키고 장방창을 大楚皇帝로 책립하였는데, 송나라에서 방창을 멸망시키자 금나라가 다시 언유를 책립하였다. 이에 국호를 齊, 원년을 阜昌이라 하였으나, 8년 만에 촉 왕으로 降封되어 황룡부로 옮겨졌다가 다시 曹王에 봉해졌다, 문집 10권이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22) 「劉豫詩」, “宋逆賊劉豫詩. 甚清和. 詩出性情之語. 或未可信耶.”

23) 「工於體物」, “隔岸水牛浮鼻渡, 傍溪沙鳥點頭行(언덕의 물소 코를 물위로 내놓고 건너고 시냇가 물새는 머리를 까닥거리며 걷네)” 劉禹錫, “階蟻相逢如遇語, 園蜂速去恐違程(뜰

하다는 점²⁵⁾과 은거자로서 박학함을 보여주었다고 평하였다.(皆當今現在之博學也)

이상에서 이덕무가 주장한 시인의 자질과 뛰어난 작품의 조건에 대해 살펴 보았다. 시인의 자질에 대해서는 성리학에 능하고 문장에 능해야 만 시인으로 훌륭한 자질을 가졌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정의 그릇된 점을 가진 이도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는 점도 지적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唐詩 위주의 追崇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음을 제시하고 다른 시기, 특히 元, 明, 淸대의 詩歌에도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 주었다.

의 재미 서로 마주치는 건 서로 얘기하는 것 같고 동산의 별 빨리 가는 건 길 잃을까 걱정하는 것 같네)”

- 24) 이덕무는 「李雨村」에서 이조원에 대한 생평과 특히 柳琴과의 만남에 대한 과정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이조원은 특히 사신 일행으로 연경을 방문한 조선의 북학파와의 관계가 돈독했음. 「李雨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李雨村調元. 字羹堂. 一字杭塘. 四川羅江人. 雍正甲寅十二月初五日生. 父化楠. 官至北路掌印同知府. 羹堂. 乾隆癸未進士. 見官吏部考功司員外郎兼文選司事. 僦居燕京順城門外. 丁酉春. 柳琴彈素隨謝恩使入燕. 彈素奇士也. 欲一交天下文章博洽之士. 嘗於端門外. 見羹堂. 儀容甚閑雅. 直持其襟請交. 遂畫塼書其姓名及字. 羹堂一見投契. 稱其名字之甚奇. 彈素屢造其室. 諄諄善接人. 呈露心素. 有長者風. 見彈素兄子得恭惠風別詩. 大加稱賞. 臨別贈以詩. (우촌 이조원의 자는 갱당이요, 또 한 자는 향당인데 사친의 나강 사람으로, 옹정시기 갑인(1734) 12월에 출생하였다. 아버지 화남은 벼슬이北路掌印同知府에까지 이르렀다. 갱당은 건륭 계미(1736)에 진사에 합격하여 현재(이덕무가 평하던 시기)는 吏部考功司員外郎兼文選司事 벼슬에 있고 그의 집은 연경 순성문밖에 있다. 정유년 봄에 유탄소(유금의 호)가 사은사를 따라 연경에 갔었는데, 탄소는 奇士인지라 천하에 문장이 박학한 선비와 교류하기를 원하였다. 그런데 端門 밖에서 갱당의 의용이 매우 단아한 것을 보고서 곧 그의 옷깃을 잡고 교류하기를 청하였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으므로 땅에다가 자기의 성명과 字를 써서 보이자 갱당은 단번에 의기투합하여 탄소의 이름과 자가 기이하다고 칭찬하였다. 탄소가 그의 집을 여러 번 방문하였는데 그때마다 정성스럽게 잘 대접하고 진심으로 토로하여 장자의 풍도가 있었으며, 탄소의 조카 혜풍 유득공의 別詩를 보고는 대단히 칭찬하였다. 이별할 적에 그는 탄소에게 이별시를 주었다.)

- 25) 「袁子才」, “袁枚字子才. 李雨村稱之曰. 子才當今第一才人. 子才著述甚富. 年今七十餘. 以庶吉士. 改上元知縣. 官止於此. 然天下知與不知. 皆稱道. 余尾蔗軒閒談. 備言其事. 暇工懷古.”

2) 僞作과 표절論爭

과거나 지금이나 위작과 표절은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논쟁은 자못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본래의 의도한 시비를 가리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李德懋는 이런 경우에 문헌상의 고증에 의해 평함으로써 논쟁에 대한 문제 해결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清脾錄』에서는 유종원과 소식에 대한 위작 논쟁이 실려 있다.

이덕무는 먼저 유종원에 대한 위작 논쟁을 평하고 있다.

사람들이 唐代 유종원의 『龍城錄』을 宋나라 사람의 僞作이라 하지만, 唐시기의 시인인 殷堯藩의 작품인 「梅花」를 거론하여서 위작의 논쟁에 대한 시비를 가렸다.²⁶⁾

好風吹醒羅浮夢，
莫聽空林翠羽聲。

좋은 바람 불어와 나부의 꿈 깨우니,
빈 숲에 지저귀는 비취소리 듣지 마소.

이덕무는 은요번의 작품인 위의 구절이 또한 『용성록』에 실린, “月落參橫翠羽啁啾事也.(달 지고 삼성 기울었는데, 물총새가 지저귀는 것이다.)”의 고사를 인용하였다고 보았다. 이것으로 『龍城錄』이 이미 唐代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고, 결과적으로 유종원의 『龍城錄』은 宋代의 작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이덕무는 은요번의 작품을 근거로 하여 유종원의 『龍城錄』이 위작이 아님을 보여 주었다.

다른 한편으로 동파에 대한 비평은 元代의 문인인 李治로부터 시작한다. 이덕무는 이야기의 평에 한편으로는 동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동의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東坡緝繆』에서 이야는 동파의 잘못을 시어 선택의 잘못과 표절의 의혹을 들고 있다. 그는 동파의 재주나 기세가 웅장하고 굳세지만

26) 『龍城錄』, “古人以柳子厚龍城錄. 爲宋人僞著. 唐殷堯藩梅花詩曰…… 此亦引龍城錄中. 月落參橫翠羽啁啾事也. 唐人已用之. 何也.”

말이 너무 성급하고 불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東坡才大氣壯. 語太峻快. 中間時時有少隍杌者.)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어선택을 잘못 했다는 것이다.

「桓魋墓」를 보자.

縱令司馬能鑿石,
奈有中郎解摸金.
何妨一笑千痾散,
絕勝倉公飲上池.

비록 사마가 석곽을 만들 수 있더라도,
중랑이 재물 모으기 위해 파헤치는 데야 어찌겠는가.
한번 웃음 모든 병 낫는데 어찌 해로운가,
창공이 상지수 마시는 것보다 훨씬 낫네.

이야는 위 작품에서 “上池水”를 언급했다. 『史記·扁鵲倉公列傳』에서 長桑君이 약을 扁鵲에게 주고 상지수로 마시라고 하면서 “복용한 지 30일이 지나면 눈으로 鬼物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인용하면서 동과는 장상군을 倉公이라고 했지만, 본래 창공은 淳于意(BC205-?)이라는 것이다²⁷⁾. (長桑君出藥與扁鵲. 飲以上池之水曰. 三十日當知物矣. 坡則以爲倉公. 倉公. 淳于意也.) 이런 동과의 실수는 인물자체를 혼동한 점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次韻周長官見寄周長官」의 구절을 예를 들고 있다.

..... 罔罔可憐眞喪狗,
時時相觸是虛舟.

멍하니 섰으니 가련한 상가의 개 같고,
수시로 부딪치는 건 빈 배일세.

이야는 이 구절을 들면서 상가의 개의 의미로 ‘喪家之狗’로 써야 할 것을 상구 ‘喪狗’라고만 썼으니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送客」에서 “鐘乳金釵十二行(종유와 금차가 열두 줄이다.)”하였는데, 이는 백거이의 시에, “鐘乳三千兩, 金釵十二行(종유에 삼천 냥이요, 금차는 열두 줄이다.)”를 표절한 것이라고 평하고 있다. 그래서 후배들의 본보기가 되지는 못할 것 같다고 주장하였고 이런 평에 이덕무는 동의하였다.²⁸⁾

27) 史馬遷 著, 張贊照 点校, 『史記·扁鵲倉公列傳』,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2005), 844-853
胥. 臨淄人, 西漢初期著名醫學家, 因曾任齊太倉長, 故人們尊稱他爲“倉公”或“太倉公”.

28) 「東坡糺繆」, “今便配合爲一句. 恐非後輩楷式. 仁卿之論固當矣.”

그러나, 이덕무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평이 가혹한 면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送陳六」시에 “去年持節發倉廩, 到處賣刀收藟栗.(지난 해 지절사로 빈민을 구제했더니, 도처에서 칼 팔아 소를 사는구나.)”라고 하였는데, 藟栗은 누에나 밤 크기의 송아지라는 뜻이라 하여 바로 소라고 할 수 없다는 평에 이덕무는 林逋의 시의 “草泥行郭索, 雲木叫鉤輻.(진흙 풀밭엔 게가 기어가고, 높은 나무엔 자고새 우는구나.)”의 구절에 있는 ‘鉤輻’과 倪瓚의 시의 “鰕觿臥雲芳草細, 鉤輻啼樹野煙和(소는 부드러운 향기 나는 풀 위에 누워 있고, 자고새는 연기 낀 나무에서 우네)”의 구절에 있는 ‘鰕觿’을 각각 자고와 소로 풀이해도 해가 되지 않으니 ‘藟栗’을 소라고 해도 해 될 것은 없다고 하였다.(鉤輻啼樹野煙和. 鉤輻鵠之聲. 鰕觿牛之形. 單指聲與形. 而不害爲鵠與牛也. 單指藟栗. 何害於詩.)

또한 이야는 「次韻張秉道」시에 “憐君嗜好更迂濶, 得我新詩喜折屐.(그대의 좋아함이 사정에 어두운 것이 애처로워, 나의 새로 짓은 시를 얻고는 나막신 부러지듯 기뻐하네.)”하였는데, 『晉書』²⁹⁾를 보면, 부러졌다는 것은 나막신의 굽이었지, 나막신이 부러졌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得我新詩喜折屐”의 ‘나막신 부러지듯’의 구절에서 부러진 것은 나막신의 굽이지, 나막신이 부러진 것은 아님을 평한 부분도 식견이 매우 좁은 것이라 평했다.

Ⅲ. 作品論

1) 뛰어난 作品의 條件

李德懋는 『清脾錄』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품, 특히 뛰어난 작품에 대

29) 房玄齡等 撰, 『晉書』, (北京: 中華書局, 1987), 2072-2080쪽. 『晉書』 謝安傳에 “사안은 그의 조카 謝玄이 苻堅을 격파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도 전혀 기뻐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두던 바둑을 계속하다가, 바둑을 끝내고 안으로 들어갈 적에야 속으로 얼마나 기뻐던지 나막신의 굽이 부러지는 줄도 몰랐다.” 하였다.

해서 작품이 가져야 하는 조건이 무엇이고 표현하면서 적절한 시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덕무는 먼저 뛰어난 작품의 조건으로 작품이 훌륭해야 하고 그런 훌륭한 작품은 뛰어나고, 아름답고 화려하며, 소박하며 비장한 것과 깨끗한 것이라고 나누어서 평하였다.

李德懋가 평한 훌륭한 작품은 첫째는 뛰어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부를 노래한 「詠漁父」에서 唐시기의 李夢符의 「漁父引」과 元시기의 程鉅夫³⁰⁾의 「漁翁圖」를 예로 들면서 옛날부터 어부를 노래한 것이 많지만, 이 두 편의 시가 평범한 면을 벗어나 자신의 심정을 잘 말하였다고 하였다.³¹⁾ 이것은 이덕무가 작품이 뛰어나다는 것은 평범함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덕무는 이런 평범함을 벗어난 것은 화려함이 아닌 정신과 情景이 뛰어난 것을 우선시 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덕무는 袁宏道³²⁾와 왕사정의 작품을 예로 들어서 구절의 화려함보다는 정신과 정경이 뛰어난 것이 우선함을 표현하였다.³³⁾

30) 方賓觀, 王存, 何育禧等 編纂, 『中國人名大辭典』, (北京: 商務印書館, 2005), 1189쪽. 程鉅夫 (1249—1318), 名文海, 字行. 鄂州京山人 (今屬湖北). 元代文學家. 元世祖試以筆禮, 改授應奉翰林文字, 初累官翰林學士承旨致仕. 文章亦春容大雅, 有『雪樓集』.(이름은 문해, 자는 행이다. 영주경산(지금의 호북)사람이다. 원대 문학가이고 원의 세조때 필레로 합격하여 관직은 한림학사, 승지에 이른다. 문장역시 봄 같아 매우 아름답다. 저서로는 『雪樓集』이 있다.)

31) 「詠漁父」, “自古詠漁父多矣. 此二詩. 能脫科臼. 道得情態.”

32) 李曰剛, 『中國詩歌流變史』, (臺北, 文津出版社, 1979), 562쪽. 袁宏道 (1568~1610) 明代文學家, 字中郎, 又字無學, 號石公. 荊州公安 (今屬湖北公安) 人. 舉一五九二年進士, 官稽勳郎中. 宏道在文學上反對“文必秦漢, 詩必盛唐”的風氣.(원평도는 명대 문학가로 자는 중량, 또는 무학이고 호는 석공이다. 형주 공안(지금의 호북 공안)사람이다. 1592년 진사에 합격한 후 관직은 계훈랑중에 이른다. 원평도는 문학사상에 있었던 “문은 반드시 진한이어야 하고 시는 반드시 상당이어야 한다”는 기풍을 반대하였다.)

33) 「袁王詩」, “余嘗稱袁中郎, 榴花爛時諸彥集. 蠟梅香裏一騎歸之華艷. 玩亭曰. 猶不如王貽上, 白蘋溪上孤幢見. 紅葉堆中數騎來之神情迢迢.(나는 일찍이 원중량의 작품인 “석류꽃 한창인데 여러 선비 모이고, 황매의 향기 속에 가마 하나 온다.”의 구절을 화려하고 아름답다 하였는데, 완정이 말하기를 왕사정의 작품 중 “흰 마름꽃 시내 위에 외로이 당간 보이고, 붉은 낙엽 쌓인 데서 두어 기마가 온다.”의 구절의 정신과 정경이 뛰어

다른 한편으로 「聖嘆評李楚望詩」에서는 작품이 좋아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감탄했음을 보여준다.

雲陰故國山川暮,	구름 긴 고국에 산천 저물고,
潮落空江網罟收.	조수 빠진 빈 강에 그물 거두네.

이 작품은 본래 李楚望의 작품인데 金聖嘆이 李楚望 작품의 ‘故國山川暮’과 ‘空江網罟收’의 구절에 대해서 “하루의 종말도 이에 불과할 뿐이고, 일생의 종말도 이에 불과할 뿐이고, 일대의 종말도 이에 불과할 뿐이다.(一日末後. 不過如此而已. 一生末後. 不過如此而已. 一代末後. 不過如此而已.)”라고 평한 부분을 소개하였다. 이 구절은 저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주위 환경이 모두 저물어가는 것처럼 인간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인 강가에서의 고기잡이도 날이 어두어지면 끝나게 되니 이것은 자연과 인간의 이치이고, 이런 일이 각각 하루, 일생, 한 세대의 끝이 다 이와 같으니 놀랍다는 것이다. 그래서 李德懋는 이 글을 읽고 나서 망연자실하여 드러누워 지붕마루를 우러러 보면서 그의 마음에 매우 감탄하였다고 했다.³⁴⁾

다른 한편으로 李德懋는 인간세상을 초월한 작품을 뛰어난 것으로 보았다. 「子虛翠寒集」에서 元의 百家詩 중에서 宋無³⁵⁾의 시를 좋아한다고 평했다.³⁶⁾ 그 좋아함은 인간 세상을 초월했기 때문임을 조맹부의 평을 소개하면서 보여

난 것이 없다고 하였다.)”

34) 「聖嘆評李楚望詩」, “余讀此語. 茫然自失. 頽然而臥. 仰視屋樑. 浩嘆彌襟.”

35) 宋無 (1260-1340) 字子虛, 号晞顔, 蘇州 (今江蘇蘇州) 人. 工詩, 송무의 무(無)는 무(无)자로도 쓰며 그의 자는 子虛이다. 그의 집은 본래 晉陵이었으나, 兵亂을 피해 뫼로 옮겨갔다. 원 세조 18년(고려 충렬왕 1, 1231)에 領征東萬戶로 있던 그의 아버지 珍國이 중풍으로 앓아눕자, 무가 자기 몸을 대신 죽게 해달라고 천지신명께 빌었다. 뒤에 바다에 들어 竹島에 이르렀다가 험한 파도를 타고 나와 高麗의 여러 산을 유람하였는데, 痼疾에 걸려 피골이 상접하도록 야윈 몸으로도 언제나 시 읊기를 폐하지 않았다. (無亦作无字. 子虛家晉陵. 以兵亂遷吳. 至元辛巳. 其父國珍. 領征東萬戶. 病痿無巧以身代. 入海抵竹島. 隨驚濤上下. 經高麗諸山. 罹沈痾. 瘦骨柴立. 未嘗廢吟.)

36) 「子虛翠寒集」, “余於元百家詩. 酷嗜宋無詩.”

주었다.(趙子昂稱其詩. 皆不經人道語.) 송무의 작품에서는 특히 동물인 쥐, 원숭이, 말, 새와 식물인 소나무, 대나무등이 자연현상인 비나 바람과 어울리는 신비로움을 주고 있다.

身黃松上鼠,
頭白竹間禽.

.....

雨青榆莢地,
風白柳花天.
鳥銜丸罷藥,
猿拾著殘棋.

노란 몸뚱이는 소나무 위의 쥐요,
하얀 머리는 대나무 사이의 새라네.

비는 느릅나무의 꼬투리에서 푸르고,
바람은 버드나무 꽃 하늘에 희도다.
새는 환약 부스러기를 물어오고,
원숭이는 버려진 바둑알을 줍고있네.

인간을 초월했다는 것은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새나 원숭이가 환약을 물고 바둑알을 줍는 일을 하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평범한 인간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元代의 시인인 송무의 여러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³⁷⁾

이외에 다소 논지에서 어긋나지만 남녀간의 정을 노래한 작품도 있다. 악부의 오성가곡의 별칭인 「讀曲歌」는 농후한 남녀의 연정을 읊은 것이 많으나 당대 산문가이었던 皇甫湜((777—835))의 「出世篇」이 극치를 이루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³⁸⁾. 그의 작품 중에서는 적나라한 성적인 묘사가 두드러지고 있다.

朝朝狎玉皇,
夜夜御天姝.
當御者幾人百千爲番.

.....

아침마다 옥황상제를 모시고,
밤마다 질세 미인을 거느리네.
모시는 여인 몇 백천 명이 번을 드네.

37) 「子虛翠寒集」에서 부분 인용된 작품은 이밖에 「寸情入妙老農」, 「西湖所見」 등이 있다. 총 5수의 작품을 소개 하였다.

38) 「出世篇」, “古詩讀曲. 多道男女風情. 不勝濃郁. 狀猶不敢咄咄逼人. 至皇甫湜出世篇而極矣.”

露明湛然無色茵色濡.	이슬처럼 맑은 무색의 액체가 요 위에 젖누나.
俄而散漫斐然虛無,	이윽고 축 늘어져 무얼 잃어버린 듯 허무하다가,
翕然復搏搏久而蘇,	다시 단단해지고 오래 있으면 소생하여,
精神如太陽.	정신이 태양같네.

다른 작품인 郭舍人의 聯句인 “齧妃女唇甘如飴(미인의 입술 깨무니 달기가 사탕 같구나.)”과 元稹의 작품에서의 “蓋覆西施鳳花錦, 身作匡牀臂爲枕(서시의 봉화금 이불 덮고, 몸으론 침대를 팔로는 베개를 삼는다오.)”의 구절이 모두 너무 음탕하지만 조금도 거리낌이 없다고 평하였다. 그래서 이 시를 韓愈에게 보였더라면 틀림없이 종아리를 맞았을 것 이라고 평을 하였다.³⁹⁾

둘째는 李德懋는 훌륭한다는 작품은 아름답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화려함, 고상함, 시원함으로 나누어서 살펴 볼 수 있다.

이덕무는 청대에 시와 산문에 능통했던 毛奇齡(1623—1716) 을 거론하였다. 모기령의 『西河全集』에 있는 詩文을 고상하고 화려하면서도 시원하다면서 몇 수를 열거하고 있다.(毛西河奇齡全集. 詩文高華逸宕.)

大江通夜落,	큰 강은 밤새도록 흐르고,
高閣近天清.	높은 누각은 하늘 가까워 맑구나.

본 구절은 밤새 흐르는 강에 있는 누각이 하늘에 가까울 정도로 밝다는 고상함을 보여주고 있다.

暗星流地濕,	어둠 속의 별빛은 진땅에 흘러 젖고,
夜水到門涼.	밤 강물은 문에 이르러 서늘하다.
賦成天漢遙,	부를 이루니 은하수가 둘러싼 듯,
筆落海濤廻.	붓 잡고 내리 쓰니 파도가 회오리치는 듯하네.

위 작품에서는 어둠 속에 있는 별빛의 화려함이 땅을 적실 정도로 화려하

39) 「出世篇」, “皆太嫫無所忌憚. 持正若以此示退之. 必遭扣脛.”

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글을 지으니 한 글자 한 글자를 쓸 때는 마치 파도가 치는 듯하여 은하수를 연상 시키고 이것은 독자에게 화려하고 시원함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李德懋는 「陳髯詞」에서 이러한 화려함을 그림에 비유한 평을 소개하고 있다. 청대의 문인인 徐鉉가 陳髯의 「望江南詞」의 “夜火千家紅杏幕, 春衫十里綠楊樓(많은 집의 밤불은 붉은 살구 장막이요, 십리라 봄 적삼은 푸른 버들 누각일세.)” 등의 구절을 예를 들면서 風景과 情事가 마치 그림과도 같다고 하였다. 또한 밤이 되어 집집마다 나오는 불빛이 마치 붉은 살구 빛의 장막처럼 아름답고 봄 적삼을 푸들 버들이 있는 누각으로 비유해서 그림으로 상상할 수 있게 화려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李德懋는 吳偉業의 「楊州」와 尤侗의 「夢」에도 이와 같다고 평하였다.⁴⁰⁾

이상의 화려함을 표현한 작품은 색채어의 표현이 많았다.⁴¹⁾ 이것은 그림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색채를 나타내는 시어가 작품에 쓰이면서 화려함을 더욱 더 강조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이덕무는 훌륭한 작품을 고결하지만 소박하고 다른 한편으로 비장함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

먼저 「李榕邨」에서는 청대 강희제 시기에 태학사를 지낸 李光地의 시를 소박하고 기이하다고 평하고 있다.(康熙朝入閣. 其詩朴而奇.)

40) 「陳髯詞」, “余嘗愛吳駿公, 尤展成詩. 繁麗駘宕. 亦同此詞. 駿公楊州詩.”

「楊州」, “撥盡琵琶馬上絃, 玉鉤斜畔立嬋妍..... 隋隄壁月珠簾夢, 小杜曾遊記昔年(말 위에 서 비파 줄 한껏 튕기고 초승달 비긴 가에 아름답게 서 있네..... 수제의 구슬 달 주렴 꿈을, 소두가 일찍이 놓고 옛날을 회상했었지.)”

「夢」, “日來行坐夜來眠, 鼓吹羊車總偶然..... 黃沙秋草熊羆地, 紫禁春風蛺蝶天.(낮이면 움직이고 밤이면 잠들어, 복치고 피리 불고 양과 수레를 모는 것이 모두가 우연이라..... 황사의 가을 풀은 웅비의 땅이요, 자금의 봄바람은 호접의 하늘이네.)”

41) 특히 「望江南詞」에서는 색채어의 사용이 많았다. 낱말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紅杏幕’, ‘綠楊樓’, ‘秋月’, ‘春花’, ‘青山’, ‘綠水’, ‘梨花’, ‘白玉山’, ‘腰煙’, ‘紅欄’, ‘雨中樓’

「重陽前晴暖」

九月難逢妍暖時,	다사롭고 화창한 구월 만나기 어렵건만,
庭花蓓蘂紫黃枝.	뜨락의 꽃 붉고 누른 가지에 망울졌네.
新霜灑露輕塗屋,	첫서리 내려 얇게 지붕 덮고,
微月清冷緩照楸.	희미한 달빛 맑게 문지방 비추네.

작품의 제1, 2 구에서는 9월의 불순한 날씨에도 뜨락에 어김없이 피는 붉은 꽃과 누런 나뭇가지를 통하여 소박함을 표현하였다. 앞의 두 구의 소박함과과는 달리 제 3, 4구에서는 지붕을 덮은 서리와 문지방을 비추는 희미한 달빛을 들어 기이함을 보여주었다. 이 작품의 특이한 점은 연관성이 없는 반대의 개념인 평범함과 기이함을 보여 준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런 감정은 이별할 때도 같아서 담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編纂朱子」

王淮陰毀毒,	왕희 ⁴²⁾ 는 남몰래 훼방하였고,
侂冑顯排擠.	탁주 ⁴³⁾ 는 드러나게 배척하였네.
林栗攻搥笑,	임울 ⁴⁴⁾ 의 공격은 가소롭기만 하고,
季通別不啼.	계통 ⁴⁵⁾ 은 이별할 때 울지 않았네.

42) 脫脫撰, 『宋史卷三百九十六·王淮傳』, (北京:中華書局, 1987), 12069쪽. 王淮는 宋나라 金華사람으로, 벼슬이 左丞相에 이르렀다. 그가 일찍이 朱熹를 미워하고 道學을 공박하였는데, 宋寧宗 때 주희 등 유학자들을 僞學이라고 몰아세우게 된 원인이 왕희에게서 비롯되었다 한다.

43) 『宋史·寧宗紀』, 앞의 책, 722쪽. 宋寧宗때 韓侂冑가 國政을 좌우하면서 자기의 의견과 맞지 않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 道學을 僞學이라고 몰아세워 위학의 黨은 조정에서 起用하는 것을 금한다는 구실로, 朱熹의 관직을 삭탈시키고 蔡元定등을 먼 데로 귀양 보내어, 조정에 정직한 선비가 하나도 없게 했던 일을 말한다.

44) 『宋史 卷三百九十四·林栗傳』, 12026쪽. 임울은 송 나라 福淸사람으로 벼슬이 兵部侍郎에 이르렀는데, 그는 朱熹가 『周易』을 논해 놓은 것이 불합리하다고 기록하였다.

45) 『宋史 卷四百三十四·蔡元定傳』, 12895쪽. 계통은 송 나라 학자 蔡元定의 자. 본 작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는 일찍이 朱熹와 우의가 두터운 사이였는데, 그 역시 僞學으로 몰려 道州로 귀양 가는 길에, 주희와 從遊하던 사람 수백 명이 蕭寺에서 전별할

이상에서 본 것처럼 이덕무는 좋은 작품으로는 평범함을 넘어서는 뛰어난 과 정신과 정경이 뛰어난 작품, 인간세상을 초월한 작품과 화려하며 고상하고 시원함이 있는 작품을 훌륭한 작품으로 보았다.

2) 적절한 詩語 使用

이덕무는 좋은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시어 하나하나에도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작품을 열거하고 있다. 『淸脾錄』에서는 적절한 시어사용 부분에서는 하나의 시어에 여러 가지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에 대한 평과 대구의 정교함에 사용된 시어를 평하고 있다. 『淸脾錄』에 표현된 시어는 ‘雙’, ‘醉’, ‘黑’, ‘暹’ 등의 글자가 시어로 사용되었다.

먼저 ‘雙’이라는 시어를 통하여 문인들과 문집사이의 다른 쓰임을 보여주었다.

본래 한 쌍의 의미인 ‘雙’은 唐代의 溫庭筠과 元代의 張養浩의 작품에서는 밭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밭을 세는 단위인 畝와의 관계에서 ‘雙’이 각각 달리 해석되고 있다. 『唐書·南詔傳』에서는 4雙이 2백畝이고, 명나라 陶宗儀가 元代의 법제 및 訓詁·書畫 등에 관해 편찬한 고증 자료인 『輟耕錄』에서는 1쌍이 4묘, 왕세정은 2쌍을 5묘라 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雙’이라는 개념은 동일하게 밭을 나타내지만 묘로 전환될 때는 다른 의미로 표현되었다. 또한 쌍이 밭을 의미하는 근거로 소에서 비롯됨을 『雲南雜志』에서 보여주고 있다.⁴⁶⁾

적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슬퍼서 눈물을 흘렸으나 원정은 평시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주희가 그에게 탄복하여 “봉우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정과 계통의 굳은 지조가 兩得이라 할 만하다.” 하자, 채원정이 시를 읊어 “손잡고 서로 웃으며 헤질 것이요, 아녀자의 슬픔은 짓지 말아야지”라 하였다.

46) 唐溫庭筠詩。招客先開四十雙。元張養浩詩。已辦良田四十雙。唐書南詔傳。宮給田四雙。爲二百畝。輟耕錄。以一雙爲四畝。佛書。以二畝爲一雙。王弇州。以一雙爲五畝。案雙之爲田。起於牛。雲南雜志曰。俗耕田三人。使二牛前牽。中壓後驅。犁一日爲一雙。(당 온

두 번째로는 시어로 ‘醉’를 사용하여 같은 시어로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와 같은 시어에 여러 개의 주체가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蝶醉」의 작품에서는 ‘醉’라는 시어가 취하게 하는 주체와 대상을 놓고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취하도록 하는 것은 나비를 취하게 하는 주체로 풀, 꽃향기, 봄비를 표현했다.

蝶醉輕銷日,	나비는 햇살에 취하고,(袁中郎 「牧丹」)
蝶光依草醉 ⁴	나비는 풀에 취하고,(柳得恭)
花香能醉蝶	꽃 향기는 나비를 취하게 하고,(黃庚)

원앙을 취하게 하는 것은 야선의 술과 봄비이다.

野船弄酒元央醉.	야선에서 술을 마시니 원앙이 취하네.(鮑溶 「元央醉」)
滿地春雨醉元央	사방에 내리는 봄비는 원앙을 취하게 하네.(淸 宗元鼎)

자리를 취하게 하는 것은 풀빛과 봄빛이다.

草色醉蜻蜓..	풀빛은 잠자리를 취하게 하네.(崔護 「蜻蜓醉」)
玉階春色蜻蜓醉.	옥계의 봄빛에 잠자리가 취하네.(徐文長)

물고기를 취하게 하는 것은 연꽃 향기이다.

荷香欲醉魚.	연꽃의 향기가 물고기를 취하려 하네.(黃庚 「魚醉」)
--------	-------------------------------

정균의 시에, ‘손님 맞으려 우선 사십 쌍을 일꿨다’ 와 원 장양호의 시에는, ‘이미 좋은 밭 사십 쌍 마련했다’고 하였다. 『唐書 南詔傳』‘관에서 밭 4쌍을 주었는데 2백 묘가 된다.’ 하였으며, 『輟耕錄』에는 1쌍을 4묘라 하고, 불서에는 2묘를 1쌍이라 하고, 왕감 주는 2쌍을 5묘라 했다. 고찰하건대, 쌍이 밭에 대한 말임은 소에서 비롯된 것이다. 『雲南雜志』에 ‘세속 사람들이 밭을 갈 적에 세 사람이 소 두 마리를 부리되 앞에서는 이끌고 중간에서는 누르고 뒤에서는 몰아, 하루갈이가 1쌍이 된다.’ 하였다.)

이상의 ‘취한다’는 취하게 하는 주체에 대상이 몰입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이와는 다르게 ‘취한다’는 것이 술에 취함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동일한 시어지만 하나는 대상에 몰입된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술에 취한다는 다른 의미가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王漁洋의 시에는,

依依望楊柳,	무성한 버들을 바라보니,
春色醉明駝.	봄빛은 낙타를 취하게 하네.

하였는데, 그 注에는 낙타가 버들잎을 먹으면 취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앞서의 나비가 취하는 것과는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駝食柳條則醉. 駱駝見柳. 渴羌見酒. 此如猫醉薄荷. 鳩醉桑黓之類也. 與蝶醉等不同.)

다른 한편으로 李德懋는 「中州集」에 있는 張澄의 작품인 「蝸國步蟻軍容」에서 달팽이와 개미를 대구한 것이 절묘하다고 평하고 있다.⁴⁷⁾

壞壁粘蝸艱國步,	무너진 벽에 붙은 달팽이 나라의 것을 어렵게하고,
荒池漂蟻失軍容.	황폐한 못에 뜬 개미 그 군의 모습을 잃었구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달팽이와 개미는 둘 다 처지가 무너진 벽과 황폐한 연못으로 비슷하다. 또한 이들은 어려운 처지인 나라와 군대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李德懋는 대우의 절묘함이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대등하게 표현했다고 감탄했다. 李德懋는 시어로 ‘黑’을 사용한 4명의 작가, 孟郊, 작자 미상인 元나라 使臣, 岑參, 白居易의 작품을 들어 모두 기묘하다고 했다.

故人獨自歸,	옛 친구 나를 두고 홀로 가버리니,
苦淚滿眼黑.	쓰디쓴 눈물이 가득차서 캄캄하네.(孟郊)
白酒紅人面,	흰 술은 사람 얼굴 붉게 하고,

47) 「中州集張澄詩」, “壞壁粘蝸艱國步. 荒池漂蟻失軍容. 對仗精絕.”

黃金黑吏心.	황금은 관리의 마음 검게 만든다.(元使臣)
雨過風頭黑,	비올 땀 바람 머리 시커멓고,
雲開日脚黃.	구름 개니 햇살이 노랗다.(岑參)
天黃生颯母,	하늘이 누렇더니 구모가 일고,
雨黑長楓人.	검은 비가 내리니 풍인이 자라네.(白居易)

이 중에서 맹교의 작품에서 친구와의 이별의 슬픔을 ‘黑’으로 표현한 점과 원대 사신이 황금이 관리의 마음을 ‘黑’으로 만든다는 것은 적절한 시어의 선택이고 충분히 예견되는 마음의 표현이다. 그러나, 잠삼과 백거이의 작품에서 ‘黑’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기묘하다. 이런 점에서 ‘妙’하다는 말은 적절함과 기묘함을 나타낸다 할 수 있다.

이외에도 李德懋는 시어 선택이 잘못된 것을 평하기도 하였다. 햇살이 올라온다는 뜻의 ‘暹’을 사용한 작품 중에서 花蕊夫人⁴⁸과 楊維禎의 시를 들어서 궁벽하여 산뜻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다. 花蕊夫人의 「宮詞」의 “雙鳳樓頭曉日暹(쌍봉루 머리에 아침 햇살 떠오른다)”와 楊維禎의 시의 “城角初昇旭日暹(성 머리에 햇살이 막 떠오른다.)”의 구절에서 시어로 ‘暹’로 쓰고 있는데 특히 楊維禎의 작품에서는 올라간다는 뜻인 ‘昇’를 사용함으로써 ‘暹’와의 중복사용으로 산뜻하지 못함을 평하고 있다.⁴⁹

IV. 中國 文人의 高麗와 朝鮮觀

이덕무는 북학파의 일원으로써 청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그런 점에서 중국인들이 고려와 조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도 관심이었다. 『淸脾

48) 態鈍生 編, 『辭海』, (臺北, 臺灣中華書局, 1980), 3705쪽. 花蕊夫人, 五代後蜀主孟昶妃. 姓費, 青城人. 工詩文, 嘗仿王建體賦宮詞白首(오대 후촉주인 맹창의 부인인데, 성은 비이고 청성인이다. 문장에 능하여 일찍이 왕건체를 따라하고 宮詞 1백 수를 지었다.)

49) 「暹」, “日光升也. 花蕊夫人宮詞. 雙鳳樓頭曉日暹. 楊鐵厓. 城角初昇旭日暹. 詩用暹爲韻. 稍僻不輕清. 昇日上也. 楊詩旣曰昇. 又曰暹. 無或疊乎.”

錄』에서도 적은 분량이지만 고려와 조선에 대해 중국 문인들의 평을 소개하였다.

『中州集』은 金나라 사람의 시집인데, 고려에 관계된 것만 골라 여기에 실었다. 이 중에서 이덕무는 學士 吳激⁵⁰⁾의 「鷄林書事」에서 고려에 대한 중국문인의 평을 살펴보았다.

箕子朝鮮僻. 蓬丘弱水寬. 儒風通百粵. 舊史記三韓. 邑聚巢居慣. 夷裝被髮安.
猶存古籩豆. 兼用漢衣冠. 兎穎家工縛. 鮭腥俗嗜餐. 騎兵腰玉具. 府衛挾金丸.
長袖鷹窺肉. 都場抗掛竿..... 主禮分庭抗. 賓筵百拜難. 潰橙抗釀旨. 滋桂鹿脩乾.
潑墨松如櫛. 隕墻石似丹. 地偏先日出. 天迫衆山攢. 鵬翼雲帆遠. 羊腸石磴盤.
由來異文軌. 休訝變暄寒. 事可資談柄. 誰能記筆端. 聊將詩貌取. 歸作畫圖看.
(기자가 세운 외진 조선 나라, 봉래와 약수처럼 멀기만 하네. 유평이 백월과도
통하였기에, 예날 사기에 삼한이라 기록되었네, 촌락은 모두 등지에 사는데,
오랑캐 복장에 머리를 풀어헤쳤으나, 아직도 옛 변두가 남아있고, 겸하여
한 나라의 의관을 사용하네, 토끼 털로 붓을 만들고, 비린 생선 즐겨 먹으나,
기병은 옥구검(玉具劍)을 찼고, 장수는 금환(金丸)을 쥔네, 긴 소매는 고기 엇본
소리개 것처럼 너풀거리고, 도성 거리는 우리 속의 개짓 듯 시끄럽네,.....
주인은 손을 동등한 예로 맞이하고, 손은 주인과 만나 백 번 절하네.
꿀 껍질 담가 맞진 술 빛고 계피에 절인 녹포(鹿脯) 만들며, 묵화(墨畫)의
솔잎은 빗살같이 즐비하고, 무너진 담장의 돌은 단사(丹砂)같이 붉구나,
지역이 외지니 해가 먼저 뜨고, 산이 겹겹이 싸여 하늘이 좁으며,
높다란 구름 돛대 멀기만 한데, 가도가도 꾸불꾸불한 비탈길이네,
본래 중국과는 다른 곳이니, 기후 다른 것 의아해 마소, 이 일들 애깃거리 될 만
한데,
넌 능히 붓끝으로 기록할 수 있겠나, 애오라지 시로 읊조렸다가,
돌아가 그림으로 그려 보련다.)

이 작품은 중국 사람이 가지는 고려에 대한 감정을 엿볼 수 있다. 그들은

50) 方賓觀, 王存, 何育禧等 編纂, 『中國人名大辭典』, (北京: 商務印書館, 2005), 330쪽. 吳激은 宋나라의 宰臣 吳拭의 아들로 朱元章의 사위이다. 건주인이고 자는 언고이다. 시와 문장에 능하고 자구마다 빼어나고 더욱이 악부에 정통하고, 말의 짜임이 맑고 완약하다. (建州人, 字彥高 工詩能文, 字畫俊逸, 得芾筆意, 尤精樂府. 造語清婉)

고려에 대해 외저 있는 작은 나라로 보고 있다.⁵¹⁾ 그래서 자기들 나라인 중국과는 달라서 기후가 다른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에서는 우리의 풍습에 대한 소개가 있다. 그러나 이덕무는 이런 풍습의 소개에 대해 중국 사람이 외국의 일을 기록함에 있어 잘못된 점이 많다면서 이 시에서 “등지에 산다.”와 “머리를 풀어헤쳤다.”의 구절은 사실이 아닌 꾸며낸 말이고, “소리개가 엇본다.”와 “우리에 갇힌 개다.”의 구절을 예를 들면서 잘못임을 지적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인들이 우리의 물상을 소중히 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咨文紙는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외교문서로 쓰이던 종이인데 고려의 경면지 위에 그려진 董其昌의 「江山秋霽圖」의 절묘함이 자문지인 경면지 표지에도 있음을 보면서 고려와 조선의 문물에 대한 우수함을 보여주었다.

高麗鏡面只三尺. 漠漠平遠開無限.
 秋霽長不滿三尺. 高麗表紙光如銀.
 (고려의 경면지(鏡面紙) 겨우 석 자쯤 되지만,
 시야가 넓고 멀어 한없이 펼쳐지니,
 추계도의 길이 석 자도 못되지만,
 고려의 표지 은색처럼 빛나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인들이 조선의 물상만 부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도 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望海樓」에 실린 「與客登望海樓 錄寄玉山主人」을 보자.

51) 「鷄林書事」의 다음의 구절에서 고려가 작고 외진 곳임을 표현하고 있다. “箕子朝鮮僻. 蓬丘弱水寬. 地偏先日出. 天迫衆山攢. 鵬翼雲帆遠. 羊腸石磴盤.(기자가 세운 외진 조선 나라, 봉래와 약수처럼 멀기만 하네. 지역이 외지니 해가 먼저 뜨고, 산이 겹겹이 싸여 하늘이 좁으며, 높다란 구름 돛대 멀기만 한데, 가도 가도 꾸불꾸불한 비탈길이네.)” 이외에 「高麗館偏涼亭」에서도 “碧海半灣蝸角國, 春風十里鴨頭波(푸른 바다 한쪽 작은 나라에, 십리 봄바람에 압록강 물결 이네.)”의 구절에서도 고려를 작은 나라로 표현하였다.

..... 遠人新到三韓國, 먼 삼한 나라 사람 새로 왔으니,
中土文明聚五星. 중국의 문명 오성⁵²이 모이겠네.

작품은 元末 明初의 시문가인 鐵崖 楊維禎이 顧玉山⁵³과 삼한에서 온 고려의 손님과 함께 망해루에 올라 쓴 감상을 이야기한다. 이에 이덕무는 삼한에서 온 손님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고려인 같고 앞서 두 명과 교분을 나눌 정도이면 비중 있는 인사일 것이라고 평하였다.⁵⁴

또 다른 조선에 대한 인식을 「魏伯子」⁵⁵를 통하여 알 수 있다.

「魏伯子」

遙聞東海使. 委曲到長安. 駐馬北平路. 都人相競看. 彝倫殷子弟.
禮讓漢衣冠. 一夕駟車去. 淒淒鴨綠寒. 在昔魯中叟. 九夷云欲居. 東方君子國.
洵如百蠻殊. 三恪存諸夏. 雙星入使車. 生藟還似玉. 嘉客意何如.
(듣자니 조선 사신이, 허리 굽혀 장안에 왔다네, 북평로에 말을 세우니,

사람들 다투어 구경하네, 이룬은 은 나라 후예답고, 예양은 한 나라 법도일세,
하룻밤 사이 수레 몰고 떠나압록강 바람이 쌀쌀하겠지, 옛날 노나라 공자도,
구이에 살겠다고 했었지, 동방은 군자의 나라여서, 오랑개와는 참으로 다르지,
삼각⁵⁶은 중국에 있는데, 쌍성(견우성과 직녀성)은 사신 수레 비추네,

52) 五星은 금성·목성·수성·화성·토성을 말한다. 이 다섯 개의 별이 동일한 시각 동일한 방향에 나타나는 것을 큰 상서로 여긴다.

53) 張延玉, 『明史 卷二百八十五』, (北京:中華書局, 1982), 7325쪽. 顧玉山, 名德輝, 阿瑛, 字仲瑛, 号玉山, 性豪放與客置酒賦詩其中..... 嘗舉茂才, 避行省屬官(이름은 德輝 또는 阿瑛, 자는 仲瑛, 옥산은 호. 성격이 호탕하여 손님들과 詩酒를 즐겼고, 벼슬을 시키려 하매 도피했다.) 저서로 『玉山璞稿』·『草堂名勝集』등이 있다.

54) 「望海樓」, “其所謂客. 似是高麗人. 而不知爲誰也. 與楊鐵崖, 顧玉山同遊. 豈非名士.”

55) 「魏伯子」, “魏際瑞字善伯. 初名祥. 叔子禧之兄也. 禧字氷叔. 又有弟曰禮. 字和公. 明亡. 兄弟隱於寧都金精山翠微峰. 耕田教授. 肆力爲古文辭.(위제서의 자는 善伯이고 初名은 祥인데, 叔子 禧의 형이다. 희의 자는 氷叔이고, 또 한 동생의 이름은 禮이고 자는 和公이다. 명나라가 망하자 형제가 모두 寧都의 金精山의 취미봉밀에 은거한 후에 농사지며 그 고장 사람들을 가르치고 고문에 전력하였다.)”

56) 態純生 編, 『辭海』, (臺北:臺灣中華書局, 1980), 46쪽, 재인용. 왕자가 先王을 공경하는 뜻이다. 주 무왕이 殷을 멸한 뒤에 虞·夏·殷의 자손을 封하여 三恪이라 한 데서 온 말이다.(周封三客, 虞·夏·殷之後也).

생추가 도리어 옥 같으니,⁵⁷⁾ 가객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작품은 魏際瑞이 燕京을 유람하다가 조선 사신을 보게 되어서 지은 것이다. 조선 사신을 보려는 인파와 사신의 위엄에 대한 중국인들의 부러움이 나타나있다. 또한 오랑캐와는 다른 군자의 나라여서 일찍이 공자가 살고 싶어 한 곳이었다는 점도 표현되었다. 구절의 ‘오랑캐’는 작자인 위재서가 명이 망한 후 금정산에서 은거 생활을 한 점으로 미루어 청나라를 은근히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李德懋는 이런 점들이 작품전체에 드러나고 있다고 보았다.

V. 結論

이덕무의 『清脾錄』의 특징은 특정하게 어느 한 인물이나 한 부분에 대해 평했다기 보다는 중국문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전 시대를 대상으로 평하였다. 또한 다른 사람의 평을 실어서 자신의 평과 비교도 하였다. 이덕무는 먼저 자신이 생각하는 시인에 대한 자질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성리학을 숭상하고 문장과 서법에 능한 자만이 시인의 능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런 기준으로 하여 본 고에서는 훌륭한 작가와 작품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먼저 훌륭한 작가는 작품이 뛰어나고, 화려하고, 소박하면서 기이한 점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런 점에 착안하여 작품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런 평이 작가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들이 작품에서 사용한 시어의 표현도 살펴보았다. 그런 가운데서 유종원과 소식에 대한 위작의 문제도 거론을 하면서 작가간의 영향 관계가 위작이나 표절의 문제까지도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덕무는 이런 평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려 노력하였다. 자기의 주장에만 근거하지 않고 반드시 다른 문인들의 평도 소개하면서 객관성을 유지하려

57) 朱熹 集註, 『詩集傳』, (臺北:臺灣中華書局, 1983). 123쪽. 『詩經·小雅祈父』 “꿀 한 줌 먹이고 옥 같은 손님 전송하다(生芻一, 束其人如玉)”에서 인용되었다. 변변치 못한 禮物를 비유하는 말이다.

하였고 그 목적을 이루었다. 중국의 사신으로 갔다 온 경험에서인지 『淸脾錄』에는 중국문인에 의한 고려와 조선에 대한 평을 실고 있다. 중국문인이 우리를 작고 외진 나라로 알고 있는 점과 우리의 풍습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오류를 차분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자가 살고 싶어 한 군자의 나라로 우리를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된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위엄있게 평하는 진중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淸脾錄』은 시화의 내용이지만 자유로운 소재나 형식으로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 중 본고에서는 중국문인에 대한 작품의 평을 살펴보았다. 60여명의 중국문인에 대해 시대를 초월하여 그들의 작품을 평함으로써 후학들에게 많은 참고할 만한 자료를 남기게 되었다. 본인도 조선의 문인으로써 이덕무가 당시 문학적인 약자의 입장에 처한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문화적, 문학적, 학문적인 열등감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당당하게 중국의 전 시대에 걸친 문인들을 평가하였다는 점에 높은 평가를 주고 싶다. 특히 이덕무가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도 크게 추송받는 소식에 대해 그의 작품이 위작과 표절의 의혹 있다고 자신있게 주장하는 소신에 후학들의 귀감이 되었다.

參考文獻

- 李曰剛, 『中國詩歌流變史』, 文津出版社, 臺北1979.
- 態純生 主編, 『辭海』, 臺灣中華書局, 臺北1980.
- 張延玉, 『明史·卷二百八十五』, 中華書局, 北京, 1982.
- 朱熹 集註, 『詩集傳』, 臺灣中華書局, 臺北1983.
- 脫脫撰, 『宋史』, 中華書局, 北京1983.
- 房玄齡等 撰, 『晉書』, 中華書局, 北京1987.
- 崔順基, 「李德懋의 『清脾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정숙인, 「『清脾錄』을 통해본 李德懋의 비평양상」, 『語文研究』, 제27권, 1997.
- 鄭淑仁, 「『清脾錄』을 통해본 이덕무의 批評樣相」, 『韓國語文教育研究會』1999.
- 유재일, 「『續函海』本 『清脾錄』의 발간 경위고찰: 이덕무와 청대문사들과의 교류를 바탕으로」, 『人文科學論集』, 제21집, 2000.
- 史馬遷 著, 張贊照 点校, 『史記·扁鵲倉公列傳』, 浙江古籍出版社, 杭州, 2005.
- 方賓觀, 王存, 何育禧等 編纂, 『中國人名大辭典』, 商務印書館, 北京, 2005.
- 鄭健行, 陳永明, 吳叔鈿選編, 『韓國詩話中論中國詩資料選粹』, 中華書局, 北京, 2002.
- 이학당, 「靑莊館 李德懋의 중국역대작가비평양상에 관한 고찰」, 『漢文學報』, 제20권, 2009.

<Abstract>

A study of the critical aspect of Chinese poetry and poets expressed in
Lee Deok mu(李德懋)'s 『清脾錄』

Jeon Young sil

Lee De ok mu(李德懋) was one of the greatest poets in latter period of Chosun dynasty. He was a Jeongjong's descendant and concubine's offspring and was regarded as a literary scholar of a positive school called Bukhakpa(北學派). During the times of Youngjo(영조) and Jeongjo(정조), there were many changes such as modernized culture, new thought, various religion etc.

Lee Deok mu exhibited the clear standard about the quality of poets which people had thought. That was the very person who respects metaphysics(성리학), were able to have a excellent calligraphy and writes poems well.

In this thesis, I chose excellent writers by his work named 『清脾錄』 which had works written by about 60 Chinese poets. 『清脾錄』 was the critical book to investigate Lee Deok mu's thought about poems and culture. Especially he respected the good writers.

I divided the good writers in this thesis with three parts. The first part, the works of the good writers was prominent, splendid, plain and eccentric. The second part, the expression of poetic diction, Chinese poets used many poetic word to express their mind and soul through their works. He made it a subject of discussion to mistake in the poem by poets. When he criticized works, he maintained the objectivity. The last part, there are many criticism of Chosun written by Chinese writers. Lee Deok mu pointed out the mistakes which Chinese writers misunderstand about Chosun.

Lee Deok mu can be considered to represent the excellent writer and critic who led the art of literature of the latter period of Yi dynasty to go more step to better literature.

Key Words : Lee Deok mu(李德懋), 淸脾錄, metaphysics. Bukhakpa, the latter period of Chosun dynasty.

투 고 일 : 2011. 1. 10. / 심 사 일 : 2011. 1. 20. ~ 2011. 2. 10. / 게재확정일 : 2011. 2. 17.